

# 미혼 여성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연구 - 울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

이 은 숙<sup>+</sup> · 이 은 정<sup>\*</sup>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교수<sup>+</sup>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강사<sup>\*</sup>

##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Wedding Dress Design - Focused on Ulsan and Seoul -

Eun-Sook Lee<sup>+</sup> · Eun-Jung Lee<sup>\*</sup>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sup>+</sup>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sup>\*</sup>  
(2009. 6. 3. 접수; 2009. 8. 1. 수정; 2009. 8. 5. 채택)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unmarried women's preferences about wedding dresses. This is researched with a survey of 300 unmarried women in Ulsan and Seoul. The survey inquires their preferences of silhouettes, necklines, materials, and details in wedding dress. 290 valid questionnaires are analyzed statistically. Statistical analysis is used average, frequency, and crosstabs with SPSS1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As for an income level, the high-income brackets in Ulsan preferred X silhouette, whereas in Seoul H silhouette. The low-income brackets in both areas preferred X silhouette. In necklines, boat neckline was preferred in both areas regardless of incomes. In materials, in Ulsan, the high-income brackets preferred silk, but the low-income brackets in Ulsan preferred satin. In Seoul, silk was preferred regardless of incomes. In details, the high-income brackets in both areas preferred beads and ribbon. In the low-income brackets, embroidery decorations were preferred in Ulsan, whereas beads, jewels and ribbons in Seoul. As for personalities, X silhouette was preferred in most personalities, A silhouette in some personalities in Seoul. In necklines, boat neckline is preferred in most personalities. In materials, silk was preferred in most personalities. In details, beads and jewels were preferred in most personalities. As for ages, in most ages, X silhouette was preferred in Ulsan, and X and A silhouettes in Seoul. In necklines, in most ages, boat neckline was preferred in both areas. In materials, silk was preferred in most ages. In details, beads and jewels were preferred in most ages.

**Key Words:** Wedding dress(웨딩드레스), Design(디자인), Preference(선호도)

## I. 서론

오늘날 신세대의 결혼식은 신성함과 엄숙함을 중시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흥미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이벤트 행사 분위기로 치우쳐가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에 대한 찬반론은 있지만 많은 스타들의 결혼식에서 볼 수 있었던 이벤트 행사 장면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공개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결혼식에도 자주 등장되고 있다.

스타들의 결혼식 공개는 동료 스타들의 결혼식과는 좀 더 차별화된 장면을 연출하게 하는 요인이며, 또한 신부들로 하여금 웨딩드레스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게 하여 친편일률적 웨딩드레스 디자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출해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독특한 디자인, 유명 디자이너 작품 등을 선호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매스컴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중들은 스타들의 웨딩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웨딩드레스 트렌드에 편승하려는 신세대 신부가 증가하면서 고전적인 스타일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나만의 위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 경향은 계속 지속될 것이며 웨딩드레스는 고전적인 스타일이어야만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각자의 결혼식 환경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요구하는 신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웨딩드레스 디디자인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선진(1986)<sup>1)</sup>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용실태와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을, 박성희(1992)<sup>2)</sup>는 웨딩드레스의 실용적인 디자인 개발을, 문윤경(1995)<sup>3)</sup>은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 고찰에서 국내 웨딩드레스의 도입배경과 근대이후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웨딩드레스의 의식구조 조사를, 신은정(2001)<sup>4)</sup>은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선호도와 자아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김계형(2002)<sup>5)</sup>은 미혼 여성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의 경향을 분석하였고 이은정, 장경혜(2006)<sup>6)</sup>는 한국의 대중스타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웨딩전문잡지에 게재된 결혼식 사진 등을 통하여 시대별로 디자인 경향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의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실제 미래에 웨딩드레스 착용자가 될 미혼여성들이 어떤 디자인을 선호할 것인지, 개성을 추구하는 신세대 미혼여성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선호가 차이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지역별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웨딩 트렌드를 기초로 한 디자인 기획 수립에 앞서 결혼 적령기에 접어드는 미혼 여성들은 그들의 개인적 특성(가계수준, 성격, 연령)에 따라 어떤 웨딩드레스 디자인(실루엣, 네크라인, 직물, 디테일)을 선호하는지를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웨딩드레스는 다른 패션제품에 비해 1회용 착용 의상으로서 고가제품이고 결혼식은 다른 상황에 비해 특별한 목적과 함께 신부의 돋보임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자기만의 정체성이 반영된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택이 필요한 아이템이므로 신부의 개인적 환경 중 가계수준, 성격, 연령 변인이 웨딩드레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은 두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 문화적 습관이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본 연구 목적에 포함시켰다. 특히 연구 대상지인 울산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서울과는 달리 산업중심적 특성을 지닌 도시로 서울이 갖는 도시적 특성과는 반대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두 지역 간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차원에서 선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인 마이웨딩은 웨딩전문잡지 중 판매부수 1위<sup>7)</sup>로서 일반 웨딩드레스 샵에서 디자인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유행 디자인을 가장 신속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자료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사진 자극물은 마이웨딩 2002년 8월호~2004년 6월호까지로 총 23권에 실린 사진들로, 실루엣, 네크라인, 소재, 디테일 4항목을 대표하는 사진 자극물을 빈도수에 의해 선정하였다. 즉 실루엣 항목은 X형, H형, A형, 머메이드형이, 네크라인 항목은 라운드형, 스퀘어형, 보트형, 오벌형, 스위트하트형, 브이형이, 직물 항목은 공단, 노방, 레이스, 망사, 벨벳, 산통실크가, 디테일 항목은 단

추, 비즈·구슬, 자수, 리본, 코사주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각 항목들은 도식화 및 선다형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별 미혼여성들이 웨딩드레스 디자인 각 항목에 대해 어떠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측 가능해봄으로써 개성을 추구하는 신세대 예비신부에 맞는 디자인 기획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견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시대적 변천

우리나라는 19세기말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습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서양문화의 유입과 함께 생활전반을 변모시켰다. 혼례복 역시 서구화되면서 그에 따른 결혼 풍습도 변화되어 갔다.

1920년 4월 8일 조선왕조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여사의 서양식 하얀 웨딩드레스 착용은 이후 결혼식에서 신부들이 혼례복으로 한복에서 양장으로의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서양의 결혼식이 20세기 초에 도입은 되었지만 형식만 바뀌었을 뿐 신부의 의상은 전통혼례복이었으며, 일부 신여성들만이 흰색의 치마저고리에 베일을 착용하는 동서 혼합형 예복이 유행하였다.<sup>9)</sup> 1930년대는 흰색의 한복에 베일을 쓴 전통문화와 서양문화가 혼합된 트렌드 경향을 보였고 1940년대는 혼례복으로 이용한 한복 치마폭이 서양 웨딩드레스의 부풀린 스커트를 모방하여 치마폭을 넓히면서 꽃장식을 달아 풍성함과 화려함을 연출하는 경향으로 변해갔다. 이후 개화의 가속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구식 결혼문화에 익숙하게 하여 1950년대부터 서구식 결혼식이 일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즈음에 웨딩드레스 대여를 겸한 전문 예식부와 미용실에서 웨딩드레스를 대여하는 체제가 생겨나면서 전통 혼례복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폐백의식용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시기는 각

대여점들이 원하는 웨딩드레스를 갖춤으로써 예비신부들의 선택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 방송이 큰 변혁을 맞이하면서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의 눈부신 발전으로 라디오로만 접했던 광고가 시각적 광고로 전달되면서 대중스타들을 광고모델로 등장시켜 그들이 착용한 의상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인기 톱스타들의 결혼식이 차츰 일반인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그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스타들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이 유행 트렌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sup>9)</sup> 한 예로서 1964년 당대 최고의 배우 엄앵란 결혼식에 착용한 A 실루엣과 긴 베일은 예비신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행 아이콘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때부터 일반인들은 스타들의 패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종하려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스타들이 차츰 패션의 리더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산업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는 미니, 미디, 맥시, 판탈롱, 사벨 라인 등 다양한 모드가 나타나 실용적인 모드로 토착화된 시기로 H 실루엣, A 실루엣 등 허리선을 강조하는 웨딩드레스가 인기를 끌었다. 어깨선을 강조한 하이 네크라인 스타일의 등장과 60년대 유행했던 7부소매가 퇴조하는 대신 긴소매에 비치는 레이스를 사용하여 시스루 효과를 나타내었다.<sup>10)</sup> 1980년대는 일반인들의 패션 의식이 향상되고 자신이 주체가 되는 디자인에 대한 갈망은 개성적이고 다양한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선보이게 하였고 맞춤식 대여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매스컴을 통한 스타들의 결혼식이 공개되고 국내외 유명 스타들이 각종 영화제에서 입고 나온 드레스 등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국내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다양화를 더욱더 촉진시켰다. 1990년대는 웨딩전문잡지가 처음으로 발간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다양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소개와 새로운 유행 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질적인 상승효과를 보여주었다.<sup>11)</sup> 또한 패션 트렌드 역시 웨딩드레스의 다양화를 촉진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로,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니멀리즘 열풍은 레이스나 액세서리를 없애고 드레스 길이를 짧게 하는 등 복잡

한 느낌을 최소화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한 디자인, 하우스 웨딩처럼 결혼식 자체를 간소화하는 신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드레스 역시 이에 걸맞는 간결한 스타일, 식장에서도 신부들은 당당하면서도 색시해 보이기를 원함에 따라 어깨와 쇄골을 드러내면서 요란스럽지 않은 화려함과 아래로 갈수록 얇전하게 퍼지는 A라인이나 머메이드 라인 등 하나의 스타일만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웨딩드레스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보조를 맞추면서 나름대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디자인들이 유행되었다.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택은 신부 자신이 제일 중요하지만 결혼은 신랑, 신부, 양가의 부모님, 친인척 간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사회제도이므로 일반 패션제품과는 달리 신부 이외의 사람들의 의견, 웨딩장소, 대중 유명스타, 패션 트렌드 등이 웨딩드레스 디자인 트렌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 1) 지역별 가계수준에 따른 실루엣, 네크라인, 직물, 디테일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살펴본다.
- 2) 지역별 성격에 따른 실루엣, 네크라인, 직물, 디테일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살펴본다.

- 3) 지역별 연령에 따른 실루엣, 네크라인, 직물, 디테일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살펴본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290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표본의 연령분포는 21세 이하 98명, 22~25세 이하 117명, 26세 이상 75명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서울지역 미혼여성 146명, 울산지역 미혼여성 144명의 분포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 197명, 직업 유 84명, 직업 무 9명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준(월급+임대소득+이자소득)은 500만원 이상 76명, 499만원 이하~350만원 이상 154명, 349만원 이하~250만원 이상 55명, 249만원 이하 4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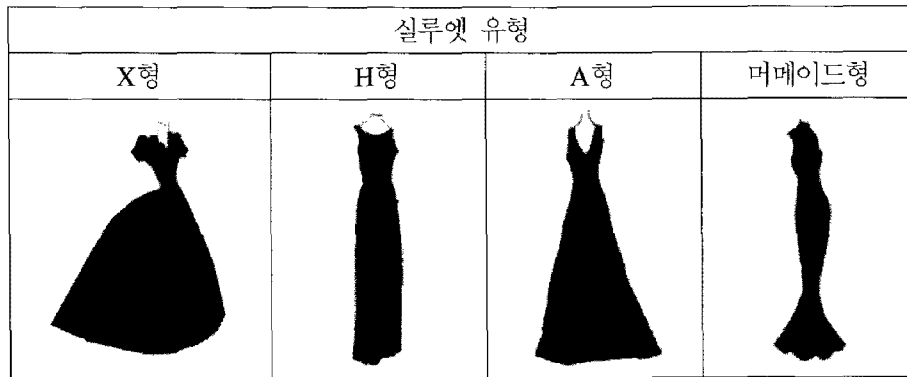
#### 3.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웨딩 잡지인 ‘마이 웨딩’ 2002년 8월호~2004년 6월호에서 실루엣, 네크라인, 직물, 디테일의 4항목을 대표하는 디자인 요소를 빈도수에 의해 선정하였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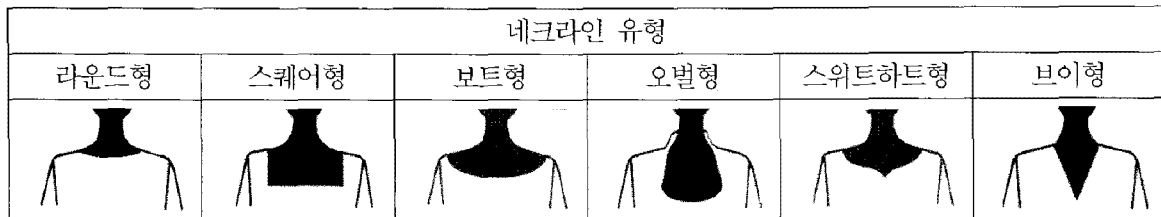
- 1) 본 조사를 위한 자극물 선정은 4항목에 대한 각각의 실물사진 여러 장을 피실험자 여대생 50명과 미혼여성 50명에게 보여준 후 각 항목을 가장 대표하는 사진을 추출하였다.
- 2) 본 조사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선호도 조사로 예비조사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실루엣은 예비조사에서

<표 1> 연대별 웨딩드레스 디자인 자료건수

	2002						2003						2004						전체								
	8	9	10	11	12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	2	3	4	5	6	계
실루엣	13	9	12	9	10	53	13	11	13	12	20	11	15	13	13	18	17	17	173	23	9	14	17	14	13	90	316
네크라인 및 칼라	9	8	9	9	9	44	17	15	17	14	20	19	21	15	16	19	23	15	211	30	12	18	13	18	18	109	364
직물	9	13	10	14	13	59	13	12	12	13	20	17	19	14	14	14	24	17	189	30	14	13	13	17	17	104	352
디테일	7	13	12	13	13	58	15	12	14	12	18	18	19	20	14	18	23	18	201	29	11	20	18	18	18	114	373
전체	38	43	43	45	45	214	58	50	56	51	78	65	74	62	57	69	87	67	774	112	46	65	61	67	66	417	1405



<그림 1> 실루엣 유형



<그림 2> 넥라인 유형

사용된 4종류의 실루엣 사진 각 1장을 그대로 사용하였고<그림 1>, 넥라인은 6종류의 도식화<그림 2> 각각 1개씩을 제시하였고 직물과 디테일은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한 자극물은 피실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얼굴, 팔)을 통제시켰고 배경색을 흑백으로 처리하였다.

#### 4. 측정도구

본 조사에서는 울산지역은 연구자가 직접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지역은 본 연구자와 본 설문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3명의 면접원이 일대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10.0을 이용하여 지역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이 사용되었고 표본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이 사용되었다.

### IV. 연구결과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의 미혼 여성들의 개인적 특성(가계수준, 성격, 연령)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실루엣, 넥라인, 직물, 디테일) 선호도를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별 가계수준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 1) 가계수준에 따른 실루엣 선호도

가계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실루엣을 살펴본 결과는 <표 2-1>과 같다. 월수입 500만원이상의 경우, 울산은 X 실루엣(8.4%)을, 서울은 H 실루엣(13.7%)을, 250만원이상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X형(46.9%와 20.5%, 16.1%와 4.8%)을, 249만원이하의 경우, 울산은 H형(0.7%)을, 서울은 A형(1.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H형은 500만원이상의 가계수준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X형은 가계수준에 상관없이 선호되는 것은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웨딩드레스 실

<표 2-1> 가계수준에 따른 실루엣 선호도 분석결과

(N=289)

가계수준	실루엣	X형		H형		A형		머메이드형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500만원이상	빈도	12	9	0	20	8	19	0	8	20	56
	전체%	8.4%	6.2%	0.0%	13.7%	5.6%	13.0%	0.0%	5.5%	14.0%	38.3%
499만원이하 ~350만원이상	빈도	67	30	5	9	14	22	1	6	87	67
	전체%	46.9%	20.5%	3.5%	6.2%	9.8%	15.1%	0.7%	4.1%	60.8%	45.9%
349만원이하 ~250만원이상	빈도	23	7	4	5	4	6	4	2	35	20
	전체%	16.1%	4.8%	2.8%	3.4%	2.8%	4.1%	2.8%	1.4%	24.5%	13.7%
249만원이하	빈도	0	1	1	0	0	2	0	0	1	3
	전체%	0.0%	0.7%	0.7%	0.0%	0.0%	1.4%	0.0%	0.0%	0.7%	2.1%
계	빈도	102	47	10	34	26	49	5	16	143	146
	전체%	71.3%	32.2%	7.0%	23.3%	18.2%	33.6%	3.5%	11.0%	100.0%	100.0%

\* 결측치 값으로 인하여 빈도 차가 있음: 울산 n=143, 서울 n=146

루엣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는 형임을 알 수 있다.

2) 가계수준에 따른 네크라인 선호도

3) 가계수준에 따른 직물 선호도

가계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네크라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월수입 250만원이상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보트형(5.6%와 17.8%, 25.9%와 23.3%, 13.3%와 4.8%)을, 249만원이하에서는 울산은 보트형(0.7%)을, 서울은 라운드형(0.7%), 스퀘어형(0.7%), 보트형(0.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트형이 가장 여성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라운드형과 스퀘어형은 가계수준에 따른

가계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직물을 살펴본 결과는 <표 2-3>과 같다. 월수입 350만원이상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산통실크(7.7%와 27.4%, 28.0%와 24.0%)를, 349만원이하~250만원이상의 경우, 울산은 공단(11.9%)을, 서울은 산통실크(9.6%)를 선호하는 것으로, 249만원이하에서는 울산은 망사(0.7%)를, 서울은 공단(0.7%), 망사(0.7%), 산통실크(0.7%)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통실크가 지역별 가계수준에 거의

<표 2-2> 가계수준에 따른 네크라인 선호도 분석결과

(N=289)

가계수준	네크라인	라운드형		스퀘어형		보트형		오벌형		스위트하트형		비어형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500만원이상	빈도	0	9	2	1	8	26	3	5	5	2	2	13	20	56
	전체%	0.0%	6.2%	1.4%	0.7%	5.6%	17.8%	2.1%	3.4%	3.5%	1.4%	1.4%	8.9%	14.0%	38.3%
499만원이하 ~350만원이상	빈도	4	1	12	1	37	34	20	9	10	13	4	9	87	67
	전체%	2.8%	0.7%	8.4%	0.7%	25.9%	23.3%	14.0%	6.2%	7.0%	8.9%	2.8%	6.2%	60.8%	45.9%
349만원이하 ~250만원이상	빈도	2	2	2	0	19	7	6	2	6	4	0	5	35	20
	전체%	1.4%	1.4%	1.4%	0.0%	13.3%	4.8%	4.2%	1.4%	4.2%	2.7%	0.0%	3.4%	24.5%	13.7%
249만원이하	빈도	0	1	0	1	1	1	0	0	0	0	0	0	1	3
	전체%	0.0%	0.7%	0.0%	0.7%	0.7%	0.7%	0.0%	0.0%	0.0%	0.0%	0.0%	0.0%	0.7%	2.1%
계	빈도	6	13	16	3	65	68	29	16	21	19	6	27	143	146
	전체%	4.2%	8.9%	11.2%	2.1%	45.5%	46.6%	20.3%	11.0%	14.7%	13.0%	4.2%	18.5%	100.0%	100.0%

\* 결측치 값으로 인하여 빈도 차가 있음: 울산 n=143, 서울 n=146

<표 2-3> 가계수준에 따른 직물 선호도 분석결과

(N=289)

가계수준	직물	공단		노방		레이스		망사		벨벳		산통실크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500만원이상	빈도	2	3	0	1	7	9	0	0	0	3	11	40	20	56
	전체%	1.4%	2.1%	0.0%	0.7%	4.9%	6.2%	0.0%	0.0%	0.0%	2.1%	7.7%	27.4%	14.0%	38.3%
499만원이하 ~350만원이상	빈도	30	11	1	1	15	16	0	2	1	2	40	35	87	67
	전체%	21.0%	7.5%	0.7%	0.7%	10.5%	11.0%	0.0%	1.4%	0.7%	1.4%	28.0%	24.0%	60.8%	45.9%
349만원이하 ~250만원이상	빈도	1	0	1	0	13	4	0	0	0	2	4	14	35	20
	전체%	11.9	0.0%	0.7%	0.0%	1.1%	2.7%	0.0%	0.0%	0.0%	1.4%	2.8%	9.6%	24.5%	13.7%
249만원이하	빈도	0	1	0	0	0	0	1	1	0	0	0	1	1	3
	전체%	0.0%	0.7%	0.0%	0.0%	0.0%	0.0%	0.7%	0.7%	0.0%	0.0%	0.0%	0.7%	0.7%	2.1%
계	빈도	49	15	2	2	35	29	1	3	1	7	55	90	143	146
	전체%	34.3%	10.3%	1.4%	1.4%	24.5%	19.9%	0.7%	2.1%	0.7%	4.8%	38.5%	61.6%	100.0%	100.0%

\* 결측치 값으로 인하여 빈도 차가 있음: 울산 n=143, 서울 n=146

상관없이 선호되어진 것은 웨딩드레스의 고유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소재로서, 유행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웨딩드레스의 기본적 소재로 인식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망사는 지역별 가계수준에 거의 상관없이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웨딩드레스의 소재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서울은 지역에 관계없이 비즈·구슬(4.2%와 15.8%, 33.1%와 15.8%)을, 349만원이하~250만원이상에서는 울산은 자수(9.2%)를, 서울은 비즈·구슬(4.8%)과 리본(4.8%)을, 249만원이하의 경우, 울산은 비즈·구슬(0.7%)을, 서울은 비즈·구슬(0.7%), 자수(0.7%), 리본(0.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비즈·구슬 장식은 가계수준에 상관없이 선호되는 디테일이고 자수와 리본은 지역간 가계수준 차이를 보이는 장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가계수준에 따른 디테일 선호도

가계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디테일을 살펴본 결과는 <표2-4>와 같다. 월수입 350만원이상

<표 2-4> 가계수준에 따른 디테일 선호도 분석결과

(N=288)

가계수준	디테일	단추		비즈·구슬		자수		리본		코사주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500만원이상	빈도	1	13	6	23	3	3	7	11	3	6	20	56
	전체%	0.7%	8.9%	4.2%	15.8%	2.1%	2.1%	4.9%	7.5%	2.1%	4.1%	14.1%	38.3%
499만원이하 ~350만원이상	빈도	3	7	47	23	16	16	13	14	8	7	87	67
	전체%	2.1%	4.8%	33.1%	15.8%	11.3%	11.0%	9.2%	9.6%	5.6%	4.8%	61.3%	45.9%
349만원이하 ~250만원이상	빈도	0	4	11	7	13	0	5	7	5	2	34	20
	전체%	0.0%	2.7%	7.7%	4.8%	9.2%	0.0%	3.5%	4.8%	3.5%	1.4%	23.9%	13.7%
249만원이하	빈도	0	0	1	1	0	1	0	1	0	0	1	3
	전체%	0.0%	0.0%	0.7%	0.7%	0.0%	0.7%	0.0%	0.7%	0.0%	0.0%	0.7%	2.1%
계	빈도	4	24	65	54	32	20	25	33	16	15	142	146
	전체%	2.8%	16.4%	45.8%	37.0%	22.5%	13.7%	17.6%	22.6%	11.3%	10.3%	100.0%	100.0%

\* 결측치 값으로 인하여 빈도 차가 있음: 울산 n=142, 서울 n=146

2. 지역별 성격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1) 성격에 따른 실루엣 선호도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실루엣을 살펴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내향형, 외향형, 소극형의 경우, 울산은 X형(13.2%, 5.6%, 6.9%)을, 서울은 A형(4.8%, 4.8%, 4.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형, 여성형, 차분형, 활달형은 지역에 상관없이 X형(6.3%과 8.2%, 6.3%와 8.2%, 6.3%와 3.4%, 19.4%와 11.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형의 경우, 울산은 머메이드형(0.7%)을, 서울은 A형(1.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X형은 성격과는 관계없이 클래식 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A형은 성격과 지역에 따라 선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격에 따른 네크라인 선호도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네크라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3-2>와 같다. 내향형, 외향형, 여성형, 차분형, 활달형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보트형(8.3%와 4.8%, 4.9%와 5.5%, 9.7%와 6.8%, 4.2%와 2.7%, 13.2%와 11.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형의 경우, 울산은 오벌형(3.5%)을, 서울은 보트형(11.6%)을, 소극형의 경우, 울산은 스케어형(3.5%)을, 서울은 보트형(4.1%)을, 남성형의 경우, 울산은 오벌형(1.4%)을, 서울은 스위트하트형(0.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보트형은 모든 성격에서 선호하는 형으로 가장 고전적인 웨딩드레스 디자인 기획 시 참고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케어형과 오벌형은 울산에서는 양극화된 형(적극적이거나 소극적)과 남성형에서 선호되고 있었으며, 서울에서는 남성형에서만 스위트하트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크라인 형이 주는 이미지와 개인의 성격특징과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성격에 따른 실루엣 선호도 분석결과

(N=290)

성격	실루엣	X형		H형		A형		머메이드형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내향형	빈도	19	4	1	6	2	7	1	4	23	21
	전체%	13.2%	2.7%	0.7%	4.1%	1.4%	4.8%	0.7%	2.7%	16.0%	14.4%
외향형	빈도	8	3	1	4	4	7	0	0	13	14
	전체%	5.6%	2.1%	0.7%	2.7%	2.8%	4.8%	0.0%	0.0%	9.0%	9.6%
적극형	빈도	9	12	1	10	1	10	2	1	13	33
	전체%	6.3%	8.2%	0.7%	6.8%	0.7%	6.8%	1.4%	0.7%	9.0%	22.6%
소극형	빈도	10	0	0	4	3	6	0	2	13	12
	전체%	6.9%	0.0%	0.0%	2.7%	2.1%	4.1%	0.0%	1.4%	9.0%	8.2%
여성형	빈도	20	7	4	4	2	4	1	4	27	19
	전체%	13.9%	4.8%	2.8%	2.7%	1.4%	2.7%	0.7%	2.7%	18.8%	13.0%
남성형	빈도	0	0	0	0	0	2	1	1	1	3
	전체%	0.0%	0.0%	0.0%	0.0%	0.0%	1.4%	0.7%	0.7%	0.7%	2.1%
차분형	빈도	9	5	2	4	4	2	0	1	15	12
	전체%	6.3%	3.4%	1.4%	2.7%	2.8%	1.4%	0.0%	0.7%	10.4%	8.2%
활달형	빈도	28	16	1	2	10	11	0	3	39	32
	전체%	19.4%	11.0%	0.7%	1.4%	6.9%	7.5%	0.0%	2.1%	27.1%	21.9%
계	빈도	103	47	10	34	26	49	5	16	144	146
	전체%	71.5%	32.2%	6.9%	23.3%	18.1%	33.6%	3.5%	11.0%	100.0%	100.0%

울산 n=144, 서울 n=146



&lt;표 3-2&gt; 성격에 따른 네크라인 선호도 분석결과

(N=290)

성격	네크라인	라운드형		스퀘어형		보트형		오벌형		스위트하트형		브이형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내향형	빈도	1	3	3	1	12	7	5	3	2	1	0	6	23	21
	전체%	0.7%	2.1%	2.1%	0.7%	8.3%	4.8%	3.5%	2.1%	1.4%	0.7%	0.0%	4.1%	16.0%	14.4%
외향형	빈도	0	1	1	0	7	8	3	1	2	1	0	3	13	14
	전체%	0.0%	0.7%	0.7%	0.0%	4.9%	5.5%	2.1%	0.7%	1.4%	0.7%	0.0%	2.1%	9.0%	9.6%
적극형	빈도	1	5	0	0	4	17	5	1	3	6	0	4	13	33
	전체%	0.7%	3.4%	0.0%	0.0%	2.8%	11.6%	3.5%	0.7%	2.1%	4.1%	0.0%	2.7%	9.0%	22.6%
소극형	빈도	1	2	5	1	3	6	2	0	2	1	0	2	13	12
	전체%	0.7%	1.4%	3.5%	0.7%	2.1%	4.1%	1.4%	0.0%	1.4%	0.7%	0.0%	1.4%	9.0%	8.2%
여성형	빈도	1	1	3	1	14	10	6	3	3	2	0	2	27	19
	전체%	0.7%	0.7%	2.1%	0.7%	9.7%	6.8%	4.2%	2.1%	2.1%	1.4%	0.0%	1.4%	18.8%	13.0%
남성형	빈도	0	0	0	0	0	0	0	2	1	0	0	1	1	3
	전체%	0.0%	0.0%	0.0%	0.0%	0.0%	0.0%	0.0%	1.4%	0.7%	0.0%	0.0%	0.7%	0.7%	2.1%
차분형	빈도	1	1	3	0	6	4	0	3	3	1	2	3	15	12
	전체%	0.7%	0.7%	2.1%	0.0%	4.2%	2.7%	0.0%	2.1%	2.1%	0.7%	1.4%	2.1%	10.4%	8.2%
활달형	빈도	1	0	1	0	19	16	8	3	6	7	4	6	39	32
	전체%	0.7%	0.0%	0.7%	0.0%	13.2%	11.0%	5.6%	2.1%	4.2%	4.8%	2.8%	4.1%	27.1%	21.9%
계	빈도	6	13	16	3	65	68	29	16	22	19	6	27	144	146
	전체%	4.2%	8.9%	11.1%	2.1%	45.1%	46.6%	20.1%	11.0%	15.3%	13.0%	4.2%	18.5%	100.0%	100.0%

울산 n=144, 서울 n=146

## 3) 성격에 따른 직물 선호도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직물을 살펴본 결과는 <표 3-3>과 같다. 내향형, 외향형, 차분형, 활달형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산통실크(8.3%와 6.8%, 4.2%와 6.2%, 4.2%와 5.5%, 12.5%와 12.3%)를, 적극형에서는 울산은 공단(3.5%)과 산통실크(3.5%)를, 서울은 산통실크(15.1%)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형의 경우, 울산은 공단(4.2%)을, 서울은 산통실크(7.5%)를, 여성형에서는 울산은 공단(9.7%)을, 서울은 산통실크(7.5%)를, 남성형에서는 울산은 레이스(0.7%)를, 서울은 레이스(0.7%), 벨벳(0.7%), 산통실크(0.7%)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통실크가 가장 고전적 웨딩드레스 소재임을 알 수 있게 하며, 공단, 레이스, 벨벳은 성격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전적 소재보다는 개성적인 디자인 기획 시 활용된다면 효과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직물임을 알 수 있다.

## 4) 성격에 따른 디테일 선호도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디테일을 살펴본 결과는 <표 3-4>와 같다. 내향형, 적극형, 소극형, 여성형, 활달형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비즈·구슬(7.0%와 6.8%, 5.6%와 7.5%, 4.9%와 2.7%, 9.8%와 4.8%, 12.2%와 9.6%)을, 외향적 성격에서는 울산은 비즈·구슬(2.8%)과 자수(2.8%)를, 서울은 비즈·구슬(4.1%)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형에서는 울산은 자수(0.7%)를, 서울은 리본(1.4%)을, 차분형에서는 울산은 비즈·구슬(4.2%)를, 서울은 단추(3.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비즈·구슬 장식은 모든 성격에서 선호되고 있으나 자수, 리본, 단추는 성격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3> 성격에 따른 직물 선호도 분석결과

(N=290)

성격	직물	공단		노방		레이스		망사		벨벳		산통실크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내향형	빈도	6	3	1	1	4	5	0	0	0	2	12	10	23	21
	전체%	4.2%	2.1%	0.7%	0.7%	2.8%	3.4%	0.0%	0.0%	0.0%	1.4%	8.3%	6.8%	16.0%	14.4%
외향형	빈도	3	3	0	0	4	1	0	0	0	1	6	9	13	14
	전체%	2.1%	2.1%	0.0%	0.0%	2.8%	0.7%	0.0%	0.0%	0.0%	0.7%	4.2%	6.2%	9.0%	9.6%
적극형	빈도	5	2	0	0	3	8	0	0	0	1	5	22	13	33
	전체%	3.5%	1.4%	0.0%	0.0%	2.1%	5.5%	0.0%	0.0%	0.0%	0.7%	3.5%	15.1%	9.0%	22.6%
소극형	빈도	6	0	0	0	3	0	0	1	0	0	4	11	13	12
	전체%	4.2%	0.0%	0.0%	0.0%	2.1%	0.0%	0.0%	0.7%	0.0%	0.0%	2.8%	7.5%	9.0%	8.2%
여성형	빈도	14	1	0	0	7	6	1	1	0	0	5	11	27	19
	전체%	9.7%	0.7%	0.0%	0.0%	4.9%	4.1%	0.7%	0.7%	0.0%	0.0%	3.5%	7.5%	18.8%	13.0%
남성형	빈도	0	0	0	0	1	1	0	0	0	1	0	1	1	3
	전체%	0.0%	0.0%	0.0%	0.0%	0.7%	0.7%	0.0%	0.0%	0.0%	0.7%	0.0%	0.7%	0.7%	2.1%
차분형	빈도	4	1	1	0	3	2	0	1	1	0	6	8	15	12
	전체%	2.8%	0.7%	0.7%	0.0%	2.1%	1.4%	0.0%	0.7%	0.7%	0.0%	4.2%	5.5%	10.4%	8.2%
활달형	빈도	11	5	0	1	10	6	0	0	0	2	18	18	39	32
	전체%	7.6%	3.4%	0.0%	0.7%	6.9%	4.1%	0.0%	0.0%	0.0%	1.4%	12.5%	12.3%	27.1%	21.9%
계	빈도	49	15	2	2	35	29	1	3	1	7	56	90	144	146
	전체%	34.0%	10.3%	1.4%	1.4%	24.3%	19.9%	0.7%	2.1%	0.7%	4.8%	38.9%	61.6%	100.0%	100.0%

울산 n=144, 서울 n=146

<표 3-4> 성격에 따른 디테일 선호도 분석결과

(N=289)

성격	디테일	단추		비즈·구슬		자수		리본		코사주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내향형	빈도	0	4	10	10	7	1	2	6	4	0	23	21
	전체%	0.0%	2.7%	7.0%	6.8%	4.9%	0.7%	1.4%	4.1%	2.8%	0.0%	16.1%	14.4%
외향형	빈도	0	2	4	6	4	2	3	2	2	2	13	14
	전체%	0.0%	1.4%	2.8%	4.1%	2.8%	1.4%	2.1%	1.4%	1.4%	1.4%	9.1%	9.6%
적극형	빈도	1	7	8	11	1	6	2	7	1	2	13	33
	전체%	0.7%	4.8%	5.6%	7.5%	0.7%	4.1%	1.4%	4.8%	0.7%	1.4%	9.1%	22.6%
소극형	빈도	1	3	7	4	2	2	2	2	1	1	13	12
	전체%	0.7%	2.1%	4.9%	2.7%	1.4%	1.4%	1.4%	1.4%	0.7%	0.7%	9.1%	8.2%
여성형	빈도	0	3	14	7	4	2	4	4	4	3	26	19
	전체%	0.0%	2.1%	9.8%	4.8%	2.8%	1.4%	2.8%	2.7%	2.8%	2.1%	18.2%	13.0%
남성형	빈도	0	0	0	0	1	0	0	2	0	1	1	3
	전체%	0.0%	0.0%	0.0%	0.0%	0.7%	0.0%	0.0%	1.4%	0.0%	0.7%	0.7%	2.1%
차분형	빈도	1	5	6	2	5	3	2	2	1	0	15	12
	전체%	0.7%	3.4%	4.2%	1.4%	3.5%	2.1%	1.4%	1.4%	0.7%	0.0%	10.5%	8.2%
활달형	빈도	1	0	16	14	9	4	10	8	3	6	39	32
	전체%	0.7%	0.0%	12.2%	9.6%	6.3%	2.7%	6.8%	5.5%	2.1%	4.1%	27.3%	21.9%
계	빈도	4	24	65	54	33	20	25	33	16	15	143	146
	전체%	2.8%	16.4%	45.5%	37.0%	23.1%	13.7%	17.5%	22.6%	12.2%	10.3%	100.0%	100.0%

\* 결측치 값으로 인하여 빈도 차가 있음: 울산 n=143, 서울 n=146

### 3. 지역별 연령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 1) 연령에 따른 실루엣 선호도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실루엣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21세이하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X형(41.0%, 6.8%)을, 22세~25세이하에서는 울산은 X형(17.4%)을, 서울은 A형(19.2%)을, 26세이상에서는 울산은 X형(13.2%)을, 서울은 A형(10.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X형은 모든 연령에서 선호하며, A형은 연령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연령에 따른 네크라인 선호도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네크라인을 살펴본 결과 <표 4-2>,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보트형(22.9%와 6.2%, 10.4%와 28.1%, 11.8%와 12.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령에 따른 직물 선호도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직물을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 21세이하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산통실크(19.4%, 12.3%)를, 22세~25세이하에서는 울산은 공단(10.4%)을, 서울은 산통실크(34.2%)를, 26세이상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산통실크(10.4%, 15.1%)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통실크는 모든 연령에서 선호하고

<표 4-1> 연령에 따른 실루엣 선호도 분석결과

(N=290)

연령	실루엣	X형		H형		A형		머메이드형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21세이하	빈도	59	10	3	7	8	6	0	5	70	28
	전체%	41.0%	6.8%	2.1%	4.8%	5.6%	4.1%	0.0%	3.4%	48.6%	19.2%
22~25세이하	빈도	25	26	4	20	5	28	4	5	38	79
	전체%	17.4%	17.8%	2.8%	13.7%	3.5%	19.2%	2.8%	3.4%	26.4%	54.1%
26세이상	빈도	19	11	3	7	13	15	1	6	36	39
	전체%	13.2%	7.5%	2.1%	4.8%	9.0%	10.3%	0.7%	4.1%	25.0%	26.7%
계	빈도	103	47	10	34	26	49	5	16	144	146
	전체%	71.5%	32.2%	6.9%	23.3%	18.1%	33.6%	3.5%	11.0%	100.0%	100.0%

\* 울산 n=144, 서울 n=146

<표 4-2> 연령에 따른 네크라인 선호도 분석결과

(N=290)

연령	네크라인	라운드형		스퀘어형		보트형		오벌형		스위트하트형		브이형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21세이하	빈도	2	3	11	1	33	9	12	7	9	4	3	4	70	28
	전체%	1.4%	2.1%	7.6%	0.7%	22.9%	6.2%	8.3%	4.8%	6.3%	2.7%	2.1%	2.7%	48.6%	19.2%
22~25세이하	빈도	2	7	4	2	15	41	10	5	6	9	1	15	38	79
	전체%	1.4%	4.8%	2.8%	1.4%	10.4%	28.1%	6.9%	3.4%	4.2%	6.2%	0.7%	10.3%	26.4%	54.1%
26세 이상	빈도	2	3	1	0	17	18	7	4	7	6	2	8	36	39
	전체%	1.4%	2.1%	0.7%	0.0%	11.8%	12.3%	4.9%	2.7%	4.9%	4.1%	1.4%	5.5%	25.0%	26.7%
계	빈도	6	13	16	3	65	68	29	16	22	19	6	27	144	146
	전체%	4.2%	8.9%	11.1%	2.1%	45.1%	46.6%	20.1%	11.0%	15.3%	13.0%	4.2%	18.5%	100.0%	100.0%

\* 울산 n=144, 서울 n=146

<표 4-3> 연령에 따른 직물 선호도 분석결과

(N=290)

연령	직물	공단		노방		레이스		망사		벨벳		산통실크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21세이하	빈도	24	1	1	0	17	5	0	2	0	2	28	18	70	28
	전체%	16.7%	0.7%	0.7%	0.0%	11.8%	3.4%	0.0%	1.4%	0.0%	1.4%	19.4%	12.3%	48.6%	19.2%
22~25세이하	빈도	15	8	0	2	8	14	1	1	1	4	13	50	38	79
	전체%	10.4%	5.5%	0.0%	1.4%	5.6%	9.6%	0.7%	0.7%	0.7%	2.7%	9.0%	34.2%	26.4%	54.1%
26세이상	빈도	10	6	1	0	10	10	0	0	0	1	15	22	36	39
	전체%	6.9%	4.1%	0.7%	0.0%	6.9%	6.8%	0.0%	0.0%	0.0%	0.7%	10.4%	15.1%	25.0%	26.7%
계	빈도	49	15	2	2	35	29	1	3	1	7	56	90	144	146
	전체%	34.0%	10.3%	1.4%	1.4%	24.3%	19.9%	0.7%	2.1%	0.7%	4.8%	38.9%	61.6%	100.0%	100.0%

\* 울산 n=144, 서울 n=146

<표 4-4> 연령에 따른 디테일 선호도 분석결과

(N=289)

연령	디테일	단추		비즈·구슬		자수		리본		코사주		계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서울
21세이하	빈도	2	3	28	10	17	6	13	8	10	1	70	28
	전체%	1.4%	2.1%	19.6%	6.8%	11.9%	4.1%	9.1%	5.5%	7.0%	0.7%	49.0%	19.2%
22~25세이하	빈도	0	19	21	27	6	8	6	17	5	8	38	79
	전체%	0.0%	13.0%	14.7%	18.5%	4.2%	5.5%	4.2%	11.6%	3.5%	5.5%	26.6%	54.1%
26세이상	빈도	2	2	16	17	10	6	6	8	1	6	35	39
	전체%	1.4%	1.4%	11.2%	11.6%	7.0%	4.1%	4.2%	5.5%	0.7%	4.1%	24.5%	26.7%
계	빈도	4	24	65	54	33	20	25	33	16	15	143	146
	전체%	2.8%	16.4%	45.5%	37.0%	23.1%	13.7%	17.5%	22.6%	11.2%	10.3%	100.0%	100.0%

\* 결측치 값으로 인하여 빈도 차가 있음: 울산 n=143, 서울 n=146

공단은 연령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4) 연령에 따른 디테일 선호도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디테일을 살펴본 결과 <표 4-4>,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비즈·구슬 (19.6%와 6.8%, 14.7%와 18.5%, 11.2%와 11.6%)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의 미혼 여성들이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대해 어떤 선호도를 보이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가계수준에 따라 실루엣, 네크라인,

직물, 디테일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루엣에서는 월수입 500만원 이상에서 지역 간 차이를 보였으나(울산: X형, 서울: H형) 그 외 가계수준에서는 모두 X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울산은 전형적인 웨딩드레스 실루엣인 X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아직까지 결혼문화에 대해서는 강한 보수적 성향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월수입 500만원 이상에서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집하기 보다는 시대적 트렌드를 받아들여려는 수용적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크라인, 직물, 디테일에서는 두 지역의 499만원 이하~350만원 이상에서는 공통성을 가진 반면, 349만원 이하~250만원 이상에서는 지역별 가계수준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2. 지역별 성격에 따라 실루엣, 네크라인, 직

물, 디테일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루엣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극형, 여성형, 차분형, 활달형은 X형을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내향형, 외향형, 소극형, 남성형은 지역 간 차이를 나타냈다. 직물에서는 적극형, 소극형, 여성형, 남성형이 지역간 차이가 나타났다. 디테일에서는 외향형, 남성형, 차분형이 지역 간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에서 개인적 성격특성이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선택할 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3. 지역별 연령에 따라 실루엣, 네크라인, 직물, 디테일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루엣에서는 21세 이하의 울산과 서울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들은 X형을 선호하는 반면, 서울에 거주하는 22세 이상~25세 이하, 26세 이상은 A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네크라인과 디테일에서는 지역별 연령에 관계없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직물의 경우 21세 이하의 울산과 서울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들은 산통실크를 선호하는 반면, 22세 이상~25세 이하의 울산 연구대상자는 공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웨딩드레스를 선택할 시 실루엣과 직물이 지역 간, 연령 간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네크라인과 디테일은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기 보다는 개인적 취향에 영향을 받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실루엣은 웨딩드레스를 선택할 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또한 지역 간 차이를 나타내주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지역별 웨딩드레스 관련 업체들은 지역적 특성을 배제한 채 유행경향을 추구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탈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업체에게는 잠재적인 고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여성이나 예비신부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조사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비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현선진 (1986).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박성희 (1992). 실용적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문윤경 (1995).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신은정 (2001). 웨딩드레스 이미지 선호도와 자아이미지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계형 (2002). 우리나라 여성의 웨딩드레스 선호도 비교.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은정, 장경혜 (2006). 한국대중스타의 시대별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 *한국의상디자인 학회지* 8(2), pp.85-94.
- 7) 마이웨딩 잡지사 전속회사(2004. 8.18). 네이버 카페. 자료검색일. 2008. 5. 24. 자료 출처 <http://cafe.naver.com/classicodyssey/22>
- 8) <http://www.isnet.co.kr/wedding/index.htm>
- 9) 이은정 (2004).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과 감성이미지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 10) 정영숙 (2001).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신교전주의 복식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 11) 이은정 (2004). Op. cit., p.22.